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86



Contents

※ 2025.07.03.(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6.26.~2025.07.0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수소

-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점검회의 개최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 (2025.06.26)1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에 5년간 8146억원 투자 (2025.06.26)1
- 경기도,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곳 개소 (2025.06.26)2
- 2025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정책 협의회 개최 (2025.06.26)2
- 충북 청주,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수소 도시로 대전환 (2025.06.26)2
- 대전 트램 건설현장 찾은 대광위 수소트램, 전국 모델될 것 (2025.06.26)3
- 포항 플랜텍, 미코에 매각 추진 수소플랜트 시너지 기대 (2025.06.27)3
- 수소도시 조성 한발 앞서는 울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2025.06.27)3
-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수요처 개발 및 공급체계 구축 업무협약 (2025.06.30)4
- 의정부시, 수소전기차 구매시 3천250만원 지원 (2025.07.01)4
- 부안군, 민선 8기 3년 적극행정 예산·관광·수소경제 혁신 성과 (2025.07.01)4
-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업 육성 마중물 역할 기대 (2025.07.02)5

☞ UAM 5

- 국정기획위 "드론, UAM 규제 완화하고 적극 지원"(2025.06.26)5

☞ 우주 6

- 우주청, 항공제조업 30년 먹거리 팀-코리아 결성 지원 (2025.06.26) 6
- 우주청-LG, 우주항공산업 간담회...2032년 달 착륙 논의 (2025.06.27) 6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2025.06.26) 7
- 대전시, 우주·국방 반도체 허브 도약 시동 (2025.06.26) 7
- 대전 우주항공 기술, 파리 하늘 날았다...에어쇼서 1억3천만달러 수출상담 (2025.06.26) 8
-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드론·스마트팜 전략산업 주력... 인구 10만 실현" (2025.06.26) 8
- 전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우주산업 육성 시동 (2025.06.30) 9
- 경남도 원전·관광·우주 도시로...2045년 미래비전 선포 (2025.07.01) 9
- 오영훈 "우주산업으로 청년에 좋은 일자리 최대 성과" (2025.07.01) 10
- 대전서 우주개발 민·관·연 다 모여...K-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2025.07.02) 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수소 11

- 원자력연 연구소기업 더센텍 설립 3D프린터로 수소차 핵심부품 제작 (2025.06.30) ... 11

☞ UAM 11

-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용역 수주(2025.06.26) 11

☞ 우주 12

- 인천공항공사 "항공전문인력 양성"... 인하대·항공우주융합원과 MOU (2025.07.02) ... 12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3

☞ 수소 3

- 롯데SK에너루트,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25.06.26)13
- 아이팝,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 운영 개시 (2025.06.27)13
- HD현대인프라코어, 1년간 탄소배출량 18% 감축 전동화·수소 제품 속력 (2025.06.27) .. 13
- 장기방치 청라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부지, 뾰족한 활용방안 없다 (2025.06.30.) ... 14
- 크리오스, 액화수소 저장탱크로 세계 최고 수준 단열성능 공식 인증 (2025.07.01) 14
- 태양광을 수소로 바꾸는 인공나뭇잎 UNIST팀 개발 (2025.06.26) 15
- 부경대 주도 국제 연구팀, 전 세계 태양광 수소 생산 능력·공급망 분석 (2025.06.27) 15
- 수소환원제철 성공 열쇠는 국산 그린수소 수입 맨 철강 원가 38% 상승 (2025.06.26) ·15

☞ UAM 16

- 현대차그룹, 로봇·전기차·UAM 미래 먹거리 사업 확장(2025.06.26)16
- GS건설-유아이그룹 UAM 사업협력 업무협약 체결(2025.06.27)16
- 브이스페이스, 국내 전기 UAM 첫 형식증명 도전(2025.06.27) 17

☞ 우주 17

- 네오오토, 우주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사업 2차년도 연구 돌입 (2025.06.27) .. 17
- 경상국립대학교-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25.06.26) 18
- 멕시코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잔해물에 환경 오염...제소 검토" (2025.06.26) 18
- 트럼프-머스크 균열에 우주사업 어부지리 노리는 베이조스 (2025.06.26) 19
- 해수부·우주항공 연구기관 이전 갈등 지방선거 쟁점 부상 (2025.06.26) 1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산업부, 수소특화단지 점검회의 개최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조성현황과 기업 투자 진행상황 점검. 동해·삼척, 포항 등 기존 2곳에 이어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을 통한 수소특화단지 확대 추진 - 기존 수소특화단지에 국비와 지방비 등 5000억원 규모 사업비 투입으로 수소클러스터 구축. 수소기업 입주 공간과 시험·평가센터,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업지원 핵심 기반 조성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건설 착공 추진. 부지 매입 완료 후 건축 설계 용역 진행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 산업생태계 조성 가속화
	<p>□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에 5년간 8146억원 투자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에 총사업비 8146억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3088억원 투입으로 철강산업 탄소중립과 경쟁력 강화 동시 실현 -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기존 고로 공정 대비 탄소 95% 이상 감축 가능한 꿈의 기술로 주목.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 산소 제거하여 탄소 대신 수증기 배출하는 친환경 제철 기술 - 국내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 기초로 30만t급 공정 실증과 중소·중견기업 기존 전기로에 수소환원철 활용 과제 추진. 2030년까지 기술 확보 후 고로의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기도,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곳 개소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가 내년까지 수소충전소 60곳으로 확대 계획 발표. 올해 말까지 상용차용 5곳, 승용차용 4곳 개소하며 수소충전소 확충을 통한 수소전기차 보급 가속화 추진 - 26일 평택모곡 수소충전소 개소로 5번째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총 4기 충전기 보유로 하루 수소버스 240대 충전 가능하며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 선도 - 수소전기차 이용자는 한국석유관리원 운영 수소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수소충전소 위치, 가격, 운영시간, 대기 차량 수 등 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기여
	<p>□ 2025년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정책 협의회 개최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특별자치도가 26일 강릉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수소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수소정책 협의회 개최.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 사항 심의를 위한 자문 기구 역할 수행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계획 보고와 수소산업 관련 최신 동향 공유 진행.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 수소산업을 새 정부 탄소중립 정책 핵심이자 강원특별자치도 7대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고도화 추진하며 수소정책 협의회 역할 중요성 강조
	<p>□ 충북 청주,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수소 도시로 대전환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청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현대차그룹 등 참여 기업이 바이오 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대비 4배 확대 추진 -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이 사업 참여로 수소 안전 허브 구축과 스마트 전력 인프라 확충 협력. 수소충전소와 수소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통한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스마트 도시 구축 - 청주를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종합적 수소 생태계 조성. 바이오 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부터 충전 인프라, 모빌리티까지 전 과정 연계한 수소도시 모델 구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대전 트램 건설현장 찾은 대광위 수소트램, 전국 모델될 것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을 방문해 국내 최초 수소트램 지원 약속.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도시철도 방식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의 상징성과 시범사례 중요성 강조 - 대전 2호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전국 확산의 기준 모델 역할 가능성 제시. 기존 도로 위 트램 건설 방식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공사 추진 가능한 장점 보유 - 총 연장 38.8km, 정거장 45곳, 차량기지 1개소 계획으로 15개 공구 중 7개 구간 착수. 나머지 8개 구간도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2028년 말 전 구간 개통 목표
	<p>□ 포항 플랜텍, 미코에 매각 추진 수소플랜트 시너지 기대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철강공단 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플랜텍이 최대주주 연합자산관리에 의해 매각 절차 진행. 코스닥 상장사 미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5일부터 본격 매각 협상 돌입 - 플랜텍은 1982년 포스코 정비 자회사 출발 후 워크아웃과 매각 과정을 거쳐 현재 별개 회사로 운영. 최근 수소발전 및 플랜트 사업 집중으로 수소에너지 사업 확장 추진 중인 미코와 시너지 기대 - 미코는 경기도 안성 소재 세라믹·반도체·에너지 분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 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확장 추진 중으로 플랜텍의 수소 관련 기술력에 매력 느끼는 상황¹
	<p>□ 수소도시 조성 한발 앞서는 울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진군이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연계성 극대화한 차별화 수소도시 모델 제시. 세계 최대 원전 보유 지역 특성을 활용한 원자력 청정수소 수소도시 조성 최적지 조건 보유 -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00억원 투입으로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 건물 열공급용 수소설비 도입과 수소버스 보급, 수소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 등 종합적 수소도시 조성 - 넥서스도시랩 컨소시엄이 용역 주관으로 원자력 청정수소 활용 수소도시 모델 완성. 체감 가능하고 안전한 수소도시 조성을 통한 국내 수소도시 선도 모델 구축 목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경남에너지, 한국가스공사와 수소 수요처 개발 및 공급체계 구축 업무협약 (2025.0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에너지가 한국가스공사와 창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활용 영남권 수소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수소 수요처 발굴과 마케팅 추진, 창원 수소생산기지 공급 방안 마련 등 상호 협력 강화 - 한국가스공사가 창원 수소생산기지 생산·유통·판매 총괄하고 경남에너지가 위탁운영사로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 책임. 2025년 1월부터 일일 최대 10톤 규모 수소 생산·공급 상업운전 안정적 운영 - 수소산업 초기 단계에서 대량 수요처 발굴과 수소충전소·유통센터 공동구매 입찰 등으로 수요 기반 확대. 수소에너지 안보 확보와 지역 수소공급망 안정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p>□ 의정부시, 수소전기차 구매시 3천250만원 지원 (2025.0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시가 수소전기차 구매 시민과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으로 차량 1대당 3천 250만원 지원. 환경부의 신모델 디올뉴넥소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원 대상 추가로 수요 증가 예상 - 디올뉴넥소는 5분 내외 짧은 충전시간과 약 720km 긴 주행거리 보유한 최신형 수소전기차. 전기모터 구동으로 정속성 뛰어나고 주행 중 물 이외 오염물질 미배출로 친환경성과 실용성 동시 보유 -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주민등록 개인 및 개인사업자, 본사·지사·사업장 소재 법인으로 개인 1대, 법인 2대 신청 가능. 최대 140만원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제공
	<p>□ 부안군, 민선 8기 3년 적극행정 예산·관광·수소경제 혁신 성과 (2025.0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이 민선 8기 3년 동안 적극행정으로 예산 8091억원 달성해 두 해 연속 신기록 수립. 2018년 5600억원에서 올해 8091억원으로 증가하며 해뜰웰니스타운 조성 등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 -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착공과 농어촌 군단위 최초 수소도시 건설로 수소 산업 선도 도시 자리매김. 인구 대비 수소차 보급률 전국 최고 수준과 군단위 최초 수소충전소 2곳 운영 - 변산반도 한국관광100선 선정과 각종 축제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인정으로 글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별 휴양관광 도시 도약 발판 마련. 로컬푸드직매장 누적 매출액 222억원 돌파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내년 5천여 명 참여 예정</p>
	<p>□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업 육성 마중물 역할 기대 (2025.07.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가 산업부 원전산업성장펀드 운영사 공모에 인라이트벤처스와 함께 에너지 첨단산업 벤처펀드로 최종 선정. 총 500억원 규모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과 SMR 관련 중소·중견기업 유치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 - 국비와 한수원 등 모태펀드 350억원, 경북도 50억원, 전남도 50억원, 포항시·경 주시·울진군 각 10억원 출자. 나머지 20억원은 지역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서 조달 계획 -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추진과 연계하여 지역 원 전·수소 산업 기술자립 및 경쟁력 확보 기여. 내년부터 본격 펀드 운용으로 대 한민국 원전·수소 산업 미래 선도 목표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p>□ 국정기획위 "드론, UAM 규제 완화하고 적극 지원"(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드론 비행시험·인증센터와 UAM 버티 포트를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 개최. 드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 현재 기술 수준과 제조 생태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진행 - 드론산업 육성 정책은 국내 활용도와 파급력이 높은 물류·항공·소방·농업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UAM은 주요 허브를 중심으로 한 버티포트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 - 이정현 경제2분과 소위원장은 드론에서 UAM으로 이어지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전 환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도약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비전과 전략 명확화, 합리적 제도기반 정비와 적극적 지원 중요성 언급
지자체	<p>- (해당 없음)</p>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우주청, 항공제조업 30년 먹거리 팀-코리아 결성 지원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국내 항공 기업의 역량을 결집, 민항기 제작사와의 협상을 주도하고 수주한 물량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팀-코리아 결성을 지원.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민항기 제작사, 국내 항공산업계와 함께 팀-코리아 구성 전략과 정책 지원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RSP는 국내 항공제조업계가 공동개발에 참여해 개발비 및 위험을 분담하고 양산시 개발품목에 대해 장기간 약 20~30년의 납품권을 행사하는 사업체계. 팀-코리아는 RSP사업 수주 이후 물량의 공정 분배 등을 수행하는 사업체계로 차세대 글로벌 민항기 개발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공동개발 참여 전략 모색 - 업계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RSP 수행체계, RSP 전용펀드 개설 필요성,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RSP 참여에 필요한 기술수준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설비 구축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문턱 하향 등을 요청. 한창현 우주청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국내 항공제조산업계의 30년 먹거리인 RSP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표명
중앙부처	<p>☐ 우주청-LG, 우주항공산업 간담회...2032년 달 착륙 논의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확대를 위한 KASA-LG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LG의 투자 관심에 화답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 윤영빈 청장을 비롯해 주요 부문장들과 LG 기술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CTO 등이 참석 - 우주청은 기업 중심 우주항공산업 확대를 위한 정책 비전과 전략을 소개하며 기술과 정책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의 중요성을 강조. LG는 자체 우주기술을 기반으로 한 LG의 역할을 논의하고 우주 스타트업 육성 현황을 공유하며 특히 무인 탐사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달 탐사 로버 주행 테스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2032년 달 착륙 목표 계획을 공개 - 앞서 2016년 LG에너지솔루션은 NASA의 우주 탐사용 우주복에 리튬이온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되어 우주 비행사의 생명 보존을 위한 산소 공급 장비, 통신장비,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의 심장 역할 수행. 윤영빈 우주청장은 다양한 기업이 우주 분야에 뛰어들어 민간이 뉴스페이스 핵심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본격 추진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성공적 정착과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 산업·연구·교육·주거·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조성을 통해 사천시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전략적 구상 - 사천시-진주시-경남도 협업 하에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성되며, 사천의 기존 인프라와 KAI·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연구-운영이 집약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핵심. 프랑스 툴루즈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교육·연구·문화시설까지 포함하는 도시 모델 구상 - 2030년까지 자연 증가 11만4000명, 사회적 증가 9만4000명, 관련 기관 및 기업 유치 9800명, 산업 고용 유발 4만8000명 등 총 25만7000명 인구 유입 목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p>□ 대전시, 우주·국방 반도체 허브 도약 시동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테크노파크가 한밭대학교에서 우주·국방 반도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차세대 국방산업과 우주기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방안 논의. 산·학·연 관계자와 반도체 전문 연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우주와 국방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반도체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공유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활용된 스타링크 사례가 집중 조명되며 민간 우주기술의 국방 전환 가능성과 그 핵심 기술인 반도체의 중요성 부각. 국방기술품질원 김장현 센터장은 국내 환경에 맞는 신뢰성 기반 인증 시스템 구축의 필수성 강조하며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부품 운용 필요성 언급 - 한밭대학교 김건희 교수는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조성 중인 특화 클린룸 인프라를 소개하며 향후 국방 R&D와 산업 고도화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 표명.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이 K-방산을 넘어 글로벌 우주방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의지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대전 우주항공 기술, 파리 하늘 날았다...에어쇼서 1억3천만달러 수출상담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테크노파크가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서 열린 2025 파리 에어쇼에서 대전기업들이 모두 50건,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 달성. 세계 3대 항공우주 전시회 중 하나인 파리 에어쇼에 총 48개국 2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진출 지원 - 대전관에는 성진테크윈, 센서테크, 아이쓰리시스템, 에이치쓰리알, 엑스엠더블유, 토펜스 등 6개 기업이 참가하여 군용 스위치부터 화학·생물학 작용제 탐지센서, 적외선 검출기, 위성통신용 송수신기 등 다양한 기술 소개. 참가기업들은 총 50건의 수출 상담과 함께 198만 달러 규모의 계약 실적 달성 - 성진테크윈은 3건의 업무협약과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향후 협력 확대 기대.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기업들이 글로벌 항공우주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시장 진입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표명
	<p>□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드론·스마트팜 전략산업 주력.. 인구 10만 실현"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민 전남 고흥군수가 민선 8기 3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우주·드론·스마트팜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 지난 3년은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고흥의 미래 기반을 착실히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임기 중 성과와 남은 1년 정책 방향 공유 -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드론·도심항공교통 관광상품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대 등 3대 전략 구현에 주력하기로 하고 2030년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새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지역 6개 핵심과제의 국정과제화에 힘을 모음. 핵심과제는 광주~고흥 고속도로, 고흥 우주선 철도,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미래 비행체 산업 허브 육성 등 - 지난 3년 성과로는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드론·UAM 기반 전략산업 선점, 고흥형 대규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속도로·철도·국도 3대 교통 인프라 추진 등을 제시. 공 군수는 더 높게, 더 흥하게 이제는 고흥 시대라며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인구 10만을 실현하는 토대를 쌓아가겠다고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전국 지자체 최초 위성 발사 성공...우주산업 육성 시동 (2025.0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위성 진주셋-1B 발사에 성공하며 우주산업 발전의 시작을 알림. 조규일 진주시장이 민선 7기로 취임한 2018년부터 사업 논의를 시작해 2019년 KTL, 경상국립대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로 제3의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 - 진주에는 진주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제1의 기적과 남명사상에 뿌리를 둔 진주 K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삼성·LG·GS·효성 등 4대 글로벌 기업의 창업주들이 국가 발전을 이룩한 제2의 기적이 있었으며 이제 우주항공 육성이 이끄는 제3의 기적을 추진 중. 조규일 시장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달해 제2, 제3의 글로벌 창업주와 혁신적인 기업가의 탄생을 기대한다고 표명 - 진주시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본격화하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으며 민선 8기 지난 3년간의 시정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해온 성장의 여정. 우주항공산업의 육성과 K기업가정신 확산의 노력을 주축으로 문화·경제·인프라·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 <p>□ 경남도 원전·관광·우주 도시로...2045년 미래비전 선포 (2025.0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해 20년을 내다보는 4대 권역별 미래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및 2045 미래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도시공간 구조를 기존 시군 단위 중심에서 광역생활권 체계로 재편해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경남의 공간정책 청사진 제시 - 경남 전역을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어 동부권은 원전·방산·수주 등 주력산업 성장과 산학연관 협력기반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기반으로 동북아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첨단혁신거점권으로 육성. 남부권은 해양산업·관광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래로 확장하는 해양경제중심권으로, 서부권은 신성장동력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중심으로 과거 위상을 뛰어넘는 미래공간혁신권으로 조성 - 북부권은 개발과 보전의 지혜로운 공존을 콘셉트로 치유·휴양도시 및 신중년 골든시티 등을 조성하는 녹색미래발전권으로 육성.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경남이도 단위 최초로 생활권 중심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점은 도시계획의 모범사례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도의 공간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오영훈 "우주산업으로 청년에 좋은 일자리 최대 성과" (2025.0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민선 8기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하며 가장 잘한 분야로 우주산업을 꼽음. 도내 우주산업 관련 기관·기업 종사자의 62%가 제주도민이고 오는 10월 한화우주센터가 준공돼 협력업체들이 입주하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인력이 양성·채용될 것이라고 전망 - 오 지사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3년이라는 시간 내에 공약을 100% 완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주도정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강조. 이는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런 결과가 보다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표명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상급종합병원 추진 시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제주에 1차부터 3차까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관건은 지정 준비 과정에서 심사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
	<p>□ 대전서 우주개발 민·관·연 다 모여...K-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2025.07.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광역시와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우주산업 관련 스타트업과 투자사, 정책기관 등이 모이는 2025 K-스페이스 스타트업 서밋 개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국내 우주산업계 스타트업과 투자사,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교류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개최 - 두 번째인 이날 서밋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욱 확장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및 민간 파트너 간 사업화 연계를 높이는 데 중점. 우주항공청, KAIST 우주연구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보령 등이 우주항공 정책 및 산업육성 방안, 우주 스타트업의 전환 및 투자 사례 등을 발표하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우주기술 개발기업 컨택, 아이스페이스 간 3자 업무협약 체결 - 스타트업과 투자사·기업의 1:1 밋업, 민간 파트너사와 오픈이노베이션 미팅 등이 진행되며 지역 주도로 행사를 기획한 만큼 대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창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 박대희 대전혁신센터 대표는 대전을 거점으로 민·관·연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표명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원자력연 연구소기업 더센텍 설립 3D프린터로 수소차 핵심부품 제작 (2025.0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11호 연구소기업 더센텍 설립으로 3D 프린팅 활용 수소차 동차 핵심부품 효율 제작. 수소연료전지 분리판을 기존 금 코팅 방식 대비 2000분의 1 비용으로 제작 가능한 혁신 기술 보유 - 크롬알루미늄 합금 사용으로 소재 비용 2000분의 1 절감과 3D 프린팅으로 성형·가공·코팅 동시 처리로 제작 시간 3분의 1 단축. 부식 방지 내부식성도 기존 기술 대비 90% 이상 수준 유지 - 수소연료전지 단가 24% 차지하는 분리판의 경제적 생산으로 수소차 핵심부품 국산화 기여. 유로 정밀 제작과 극한 환경 산업용 소부장 제작 효율화로 수소연료 시장 확장 동력 제공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p>□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용역 수주(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발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산업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착수. 경기도형 UAM 도입과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성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목적 - 주요 과업으로 UAM 산업·기술·정책 동향 분석, 국토교통부 시범운용구역 지정 대비 대응 전략 수립, 실현 가능한 산업모델 도출 등 포함. 한서대학교 산업협력단을 주축으로 경기교통공사, 버티, 에어랩스가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 수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교통공사는 그간 G+ 정책플랫폼 활용 공동 세미나, 협력체계 구축, UAM Team Korea 워킹그룹 참여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분야 역량 확보 노력. 민경선 사장은 지상 교통수단과 항공 모빌리티 연계를 통한 도민 이동 편의성 향상 기대감 표명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p>☐ 인천공항공사 "항공전문인력 양성"... 인하대·항공우주융합원과 MOU (2025.07.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항공 및 교육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 및 각 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식에 참석 - 공사가 추진 중인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을 비롯해 4차 산업 신기술 기반 디지털 대전환, 공항경제권 개발 등 미래 성장사업과 연계해 항공산업 분야 차세대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전형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주안점. 공사 항공교육원이 보유한 항공교육 분야 전문성과 인하대학교 및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자원 및 연구 인프라 활용 - 실제 항공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는 협약을 계기로 인하대학교와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도 추진. 이학재 사장은 미래공항 패러다임을 선도할 글로벌 항공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 공항경제권 개발 등 공사의 미래 성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표명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롯데SK에너지,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SK에너지가 설비 용량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울산하이드로젠 파워2호'의 상업운전을 본격 개시.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내 위치하며 연간 약 160GWh 전기 생산으로 4인가구 약 4만세대 1년 전력 공급 규모 - 타 발전소와 달리 탄소배출 없는 수소전용 모델 적용으로 청정수소 도입 시 추가 설비 변경 없이 연료 전환 가능. 폐열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 기여로 차세대 친환경 발전원 역할 수행 - 내년 11월까지 총 4개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 돌입 시 누적 운영 규모 총 80MW 달성 전망. SK가스과 롯데케미칼이 수소경제 실현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
	<p>□ 아이팝,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 운영 개시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드론 전문기업 아이팝이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사업화 사업 선정으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실증 운영 개시. 강원도 영월 SM탑스텐 동강시스타 리조트에서 안전·화재 감시 및 생육관리 서비스 실증 수행 - 수소드론은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비행시간 2배 이상 확장으로 넓은 지역 효율적 관리 가능. 이동형 드론 스테이션으로 산림 지역 산불 감시 확대와 골프장 잔디 상태 최적 유지 기여 - 엣지 컴퓨팅 모듈 탑재로 실시간 AI 영상처리 즉각 대응 가능하며 기존 배터리 드론 대비 탄소 배출 1/10 수준으로 감축. 8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핵심 기술 소개 예정
	<p>□ HD현대인프라코어, 1년간 탄소배출량 18% 감축 전동화·수소 제품 속력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현대인프라코어가 지난해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을 18.9% 감축으로 목표 초과 달성. 전자유압 및 전동화 기술 적용 건설기계 비율 25% 달성과 내부 탄소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격제 도입으로 탄소 감축 노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업장 재생에너지 사용량 약 3배, 국내 5배 증가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군산공장 열 회수 시스템과 PPA 통한 태양광 전력 도입으로 연간 온실가스 131tCO₂eq 감소 효과 - 11L급 상용차용 HX12와 22L급 발전용 HX22 수소엔진 양산 준비와 24톤급 차세대 전동 굴착기 공개. 전동화 및 무인화, 자동화 기술 투자 매년 10% 확대로 저탄소 제품군 포트폴리오 강화
	<p>□ 장기방치 청라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부지, 뾰족한 활용방안 없다 (2025.0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모비스가 수소연료전지 스택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매입한 청라국제도시 부지가 3년째 방치. 2021년 매입 후 2024년 5월 수소연료전지 분야 자산을 현대차에 이양하면서 개발 계획 무산 - 약 10만304㎡ 규모, 근로자 1천500명 고용 계획이었던 공장 건립이 무산되며 현재까지 구체적 개발계획 없어. 인천경제청이 계약 해지 가능한 상태이나 어정쩡한 상황 지속 - 인천경제청이 직접 매입 시 약 950억원 필요하며 제3기업 투자 등 여러 방안 검토 중. 청라 앵커기업 유치 실적 유지 위해 계약 해지 없이 현대모비스와 지속 논의하나 뚜렷한 해결책 부재
민간기업	<p>□ 크리오스, 액화수소 저장탱크로 세계 최고 수준 단열성능 공식 인증 (2025.07.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저온 특수가스 탱크 전문기업 크리오스가 자체 개발한 액화수소 저장탱크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 단열성능 공식 인증 획득. 4톤급 탱크 자연기화율 0.2%대로 업계 기준 0.9% 대비 4배 초과 달성 - 린데코리아 의뢰로 제작된 액화수소 4톤 저장 탱크가 6월 29일~30일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공인 시험 통과. 해외 경쟁사 대비 세계 최고 수준 단열성능 입증으로 국내 액화수소 탱크 수입 대체 효과 확산 전망 - 글로벌 액화수소 저장 및 운송 탱크 시장이 2032년 111억 달러 규모 성장 예상으로 글로벌 수출 기대. 수입 위주 국내 수소산업에서 국산화 대체 전기 마련과 국내 수소 생태계 핵심 공급업체 도약 가능성 제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태양광을 수소로 바꾸는 인공나뭇잎 UNIST팀 개발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ST 연구팀이 고효율·고내구성·대면적 확장성을 갖춘 모듈형 인공나뭇잎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광 흡수층과 니켈-철-코발트 촉매 활용한 4×4 배열 모듈로 태양광 수소 전환 효율 11.2% 달성 - 기존 태양전지 기반 전기분해 방식과 달리 광에너지를 직접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로 시스템 저항 손실 최소화. 상용화 필요 10% 이상 효율을 모듈 규모에서 달성하며 실용화 가능성 크게 제고 - 염소 첨가 페로브스카이트 흡광층과 자외선 강화 전자수송층, 특수 니켈 포일 수지 봉지 기술 적용으로 140시간 연속 작동에서 99% 초기 성능 유지. 태양전지 패널처럼 대면적 확장 가능한 상업화 모델 제시 <p>□ 부경대 주도 국제 연구팀, 전 세계 태양광 수소 생산 능력·공급망 분석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경대 유준·이양원 교수 연구팀이 전 세계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잠재력과 경제성 분석.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로 지역별 수소 생산 잠재량과 비용을 1km 해상도로 산출하며 글로벌 수소 무역 경로 최적화 모델 개발 - 38MW 태양광 발전소와 12.6MW 전해조 시스템 기준으로 지역별 연간 215톤15.25달러 생산 단가가 2050년 최저 2.99달러로 하락 전망 - 태양광 기반 수소 경제의 글로벌 잠재력 정밀 분석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 제시. 각국 정책 입안자들의 수소 로드맵 달성을 위한 글로벌 무역 경로 식별 의사결정 도구 제공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기타	<p>□ 수소환원제철 성공 열쇠는 국산 그린수소 수입 땀 철강 원가 38% 상승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그린수소 수입 시 철강 생산 원가 38% 상승. 전량 국내 생산 시 95만원, 80% 수입 시 153만원으로 국산화 경제성 크게 앞서 - 철강산업이 2050년까지 연간 약 405만톤 그린수소 필요하며 정부 수소정책이 산업용 수요·공급 반영 부족. 국내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과 정책적 지원 시 급성 제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수소 수입 가격에 액화·운송·기화 비용 미반영으로 실제 비용 과소평가. 국산 그린수소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여 효과로 국산화 필요성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현대차그룹, 로봇·전기차·UAM 미래 먹거리 사업 확장(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글로벌 무역 갈등 등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DNA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 그룹은 완성차를 넘어 로봇, 미래환경교통 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분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 - 전기차 부문에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21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 구축을 목표로 하고, 기아는 2027년까지 목적기반차량을 포함한 15개 모델의 전기차 풀라인업 계획.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는 로봇 활용 제조 혁신 기술 적용 - UAM 분야에서 작년 4월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첫 실증 사업 성공과 함께 독립법인 슈퍼널을 통해 차세대 UAM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S-A2 실물 최초 공개. 2028년 상용화 목표로 최대 400-500m 고도에서 시속 200km 순항 속도 구현 예정
민간기업	<p>☐ GS건설-유아이그룹 UAM 사업협력 업무협약 체결(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S건설이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유아이그룹과 도심항공교통 사업 초기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GS건설은 UAM 주요 섹터별 사업자들과 함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 - 유아이그룹은 운항 및 항공정비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기체 운항 안전 및 유지·정비 체계 수립,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의 역할 수행. 협력 분야는 UAM 초기 시장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산시와의 시범사업 추진 협력 강화, 통합운용 체계 구축 등 - 양사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주도의 UAM 시범사업에 공동 준비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항을 위한 실제적 역량과 체계 구축을 통해 UAM 초기 시장 진입 본격화 계획.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UAM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 모색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브이스페이스, 국내 전기 UAM 첫 형식증명 도전(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스페이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추진 도심형 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 절차에 공식 돌입.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 주관 'UAM 항공기 시범인증 및 인증체계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UAM 산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 전환점 예상 - Lift+Cruise 방식의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VS-300' 개발 중이며, 형식증명 신청을 통해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기술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인증 시제기 공개 계획. 3인승 구조로 에어택시 수요에 맞춘 적정 기술 수준 적용하여 상용화 추진 - 형식증명은 항공기 설계가 감항당국의 기술 기준에 부합함을 공식 인정받는 절차로 상업 운항과 사업화의 필수 요건. 조범동 의장은 한국이 미래 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술과 제도를 선점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상용화 실현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의지 표명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네오오토, 우주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사업 2차년도 연구 돌입 (2025.06.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모빌리티 부품 전문기업 네오오토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기 획평가원이 주관하는 행성 탐사용 로버 구동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2차년도 연구에 본격 돌입.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이번 사업은 흑독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우주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로봇 구동 부품 및 감속기 개발이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오오토는 1세부 과제인 행성 지표 탐사용 로버 구동용 모터, 드라이버 및 감속기 개발에 핵심 기업으로 참여하며 총 54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제 중 첫 30개월은 1단계 과제로 지구 환경에서 수행되고 이후 24개월은 2단계 과제로 우주 환경에서 수행될 예정 - 네오오토가 개발 중인 액추에이터용 감속기는 네오오토가 직접 설계, 제작, 시험을 통해 자체 개발한 감속기를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행성 탐사용 로버의 구동, 조향, 현가, 작업부 등 핵심 기능 전반에 적용되어 우주 탐사 임무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이를 기반으로 향후 로봇을 비롯한 무인이동체, 방산 등 다양한 환경의 모빌리티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경쟁력 확보 계획
대학교	<p>□ 경상국립대학교-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 분야 협력 방안 논의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국립대학교가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양 기관 간 우주항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연구시설 시찰. 권진회 총장을 비롯해 국제처장, GADIST 원장, 우주항공대학장 등 6명의 주요 인사가 동행하여 항우연 주요 관계자들과 만남 - 경상국립대학교 및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조직의 비전, 양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업무협약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위성종합관제실 등 항우연의 핵심 우주개발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위성발사환경시험, 궤도환경시험, 전자파환경시험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 - 권진회 총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분야 연구기관이며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이 추구하는 첨단·실무 중심 교육·연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우주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 중
해외	<p>□ 멕시코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잔해물에 환경 오염...제소 검토"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정부가 미국 스페이스X의 우주선 폭발 잔해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예고.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 넘어온 특수 폐기물이 타마울리파스주에 떨어져 일부 지역을 오염시켰다며 국제법 틀 내에서 스페이스X 제소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발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8일 밤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의 스페이스X 로켓 발사장 스타베이스에서 우주선 스타십의 로켓이 지상 엔진 점화 시험 중 폭발하여 잔해물이 스타베이스에서 직선거리로 3~5km 떨어진 멕시코 브라보강 일대에 낙하. 미국 접경 도시인 마타모로스에서는 하늘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집 안에서 강한 떨림이 느껴졌다는 주민 진술 - 멕시코 대통령은 타마울리파스 일부 지역에 현재 관련 경보가 발령된 상태이며 주민들에게 잔해물로의 불필요한 접근을 삼갈 것을 지시했다고 밝힘. 이 사건을 계기로 양국 국경 지대에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전 문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강조 <p>□ 트럼프-머스크 균열에 우주사업 어부지리 노리는 베이조스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면을 부쩍 늘린 것으로 외신 보도. 베이조스가 이달에만 트럼프 대통령과 2차례 이상 통화했으며 일부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거친 말다툼을 벌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짐 - 트럼프와 테슬라의 사이가 벌어지자 우주항공 분야에서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하고 있는 블루오리진이 그 틈을 파고들어 어부지리를 노리는 모습. 블루오리진의 데이브 림프 CEO는 이달 중순 직접 백악관을 찾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나기도 했으며 이 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베이조스의 통화가 이뤄짐 -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조스와 블루오리진 측 인사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블루오리진은 스페이스X보다 아직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지난 4월 미 우주군 사령부는 스페이스X와 28차례의 로켓 발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블루오리진과는 7차례 발사 계약만 체결
기타	<p>□ 해수부·우주항공 연구기관 이전 갈등 지방선거 쟁점 부상 (2025.06.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해양수산부 이전 지시를 두고 지역과 정치권 반발이 가시화되며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 대전·충청권에서는 해수부 이전과 함께 우주항공 관련 연구기관 이전 가능성을 두고도 반발이 이어지며 부산·경남과 대전·충청권의 지역 대결구도로 번질 우려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줄속으로 추진한다며 강력한 문제 제기 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 항우연·천문연 사천 이전 법안에 대해 과학기술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 표명 - 민주당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고 평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언급되며 해수부 이전은 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이라는 분석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